

모든 성인들의 축일 (2020년 6월 14일)

오늘, 하늘과 땅의 그리스도 교회는 수많은 성인을 찬양하고 그분들을 영광스럽게 기리며 축일로 지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여러 시대에 걸쳐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 모든 성인의 축일이 오늘입니다.

성인 중에서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그 성인과 관계된 날을 축일로 기념합니다. 그러나 성인 중에도 상당수는 이름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한 날을 정해 함께 기념하는 축일로 정했는데, 그날이 바로 오순절 다음 주일인 오늘입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그분들이 모두 다같이 성령의 은총으로 성인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축일 시냇사리온에도 있듯이,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성인들을 오늘 함께 축일로 지냅니다. 아홉 천사단, 주님의 선조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조상들, 예언자들, 거룩한 사도들, 순교자들, 사제들, 사제 순교자들, 수도 순교자들, 의인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남녀 어린아이들이 그들입니다. 이분들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성인들이지만 축일로 지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성인 중에서 가장 축복받으시고 거룩하시며 높으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공경하며 오늘 함께 축일로 지냅니다.

그리고 오늘이 모든 성인의 축일로 정해진 또 다른 이유로, 우리가 그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되어 영향을 받아, 각자의 삶에서도 같은 열정과 간절함으로 영적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냇사리온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성인이 되기 위해 영적 투쟁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겁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 많은 내가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라고 말이지요. 그들은 당연히 기적을 행하는 성 니콜라스나 유명한 성인들은 원래 성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기적을 일으키는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위대한 성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기적의 은사를 받았습니 다. 이들은 간절한 영적 투쟁으로 열매를 받은 것이며, 우리는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너희는 삼가 스스로 몸가짐을 깨끗이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 주가 너희 하느님이다."(레위기 20,7)라고 말씀하셨고, "성서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게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베드로 전 1:16)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두 악마와 죄를 끊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연합하여 그분의 뜻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스스로 홀로 성인이 되라고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오직 홀로 거룩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과 친교하고 연합되면 하느님의 거룩함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는 이는 나 주이다."(레위기 20,8)

어떤 사람이 경탄할 만큼 그리스도에 대해 좋은 말을 하고, 자선과 교회에 기부도 많이 하고, 성찬에 배나 여러 예식에 빠지지 않고 참례한다고 해도, 더 나아가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도 바리사이파인들처럼 사람들의 칭찬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비록 사람들이 그를 성인이라고 떠받들어 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혀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거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하고 말할 것이다.”(마태오 7,22-23)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것으로 자신이 성인이라고 믿는다면 심판의 때에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거룩한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깁니다. 위대한 사도이며 동족의 사도인 바울로를 생각해 봅시다. 이분은 말년에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편지에 썼습니다. (디모테오 전 1:15-16 참조) 현대의 성인이신 뵈르피리오스께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했을 때 "나는 오래된 쓸모없는 강퍽입니다."라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축일로 지내는 성인들 역시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사신 분들이 아닙니다. 성인들 중에는 사회에서 죄를 짓고 행실이 좋지 않은 삶을 살아간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회개와 영적 투쟁으로 치유를 받았고, 신비의 성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죄가 씻겨지고, 성령으로 깨달음을 얻어 높은 영적 경지에 도달했으므로 오늘 우리는 그분들을 성인으로 존경하고 공경합니다.

어떤 사회 계층에 속해있든지, 어떤 교육을 받았든지, 어떤 윤리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영적 투쟁을 한다면 결국 거룩함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총, 그리고 사람과의 협력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은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데살로니카 전 4:3)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가 설립되고 거룩한 신비의 성사들, 가르침들, 목자들의 어린 양떼들에 대한 사목 등, 모든 방법이 우리를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도 또한 원해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권고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뵈지 못할 것입니다.”(히브리 12,14)

오늘 축일로 지내는 모든 성인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분들의 증보로, 또 이분들의 삶의 궤적을 모범으로 삼아, 성인의 삶을 뒤따라가도록 노력합시다. 아멘